지식경제부 보도자료	http://www.mke.go.kr
2011년 7월 15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유법민 투자유치과장(02-2110-5361), 박성우 사무관(5363), 정해진 주무관(5362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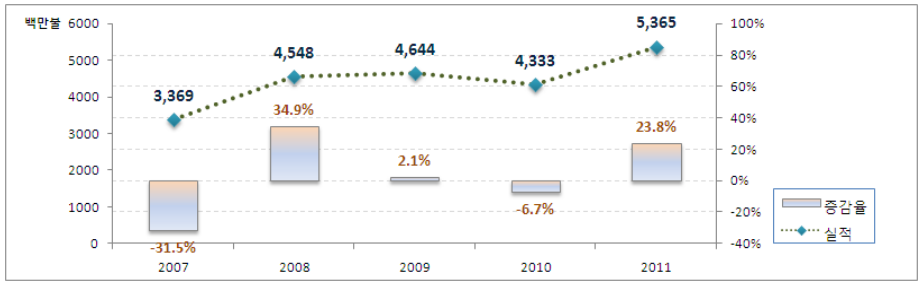
'11년 상반기, 외국인직접투자(FDI) 동향

◇ **전년동기대비 23.8% 증가한 53.7억불로 증가세 시현**
◇ **그린필드형 투자(30.6%↑) 및 선진국 투자(67.6%↑) 증가**
◇ **일본 대지진 불구 지속적인 일본 투자 증가세 유지(43.5%↑)**

1. 전반적인 동향 및 평가

□ **(동향)** 상반기 FDI 신고액은 **전년 동기(43.3억불)** 대비 **23.8% 증가**한 **53.7억불**, 도착금액(잠정)은 전년동기(22.8억불) 대비 22.8% 증가한 28억불

< 연도별 상반기 FDI신고액 추이 >



□ **(전반적 평가) 일본 대지진, 중동 정세 불안, 유로 재정위기 우려** 등에도 불구하고, 국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1/4분기에 이어 2/4분기에도 **FDI 증가세 유지**

○ **(특징)** 중동 지역을 제외한 **대부분의 지역에서 투자가 증가**하였으며, 1/4분기 추세가 이어져 **그린필드형** 및 **서비스업 투자 증가세 뚜렷**

- 지난해 상반기 투자가 급감*했던 **미국**(186%↑)·**일본**(43.5%↑)·**EU**(45.6%↑)등의 **對韓 투자 증가**가 **FDI 증가**에 크게 기여

* '10년 상반기 주요국 투자 동향(전년 比) : 미국 36.2%↓, 일본 42.3%↓, EU 21.8%↓

- **그린필드형 투자는 증가(31%↑)**, M&A형 투자 소폭 감소(2.5%↓)하여 지난해 추세가 지속

- **제조업**(12%↑)·**서비스업(17%↑) 모두 증가세**, 특히 금융, 유통 분야 투자가 급증하여 **서비스업 증가 뚜렷**

* '10년 상반기 업종별 특징(전년 比) : 제조업 감소(28.5%↓), 서비스업 증가(8.6%↑)

○ **(요인) 한-EU FTA 발효 기대감***, 우리나라 경제의 **견조한 성장세 전망**** 등에 힘입어 對韓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

* 한-EU FTA 발효시 EU의 對韓직접투자 **30% 증가** (IBM Consulting, '08)
** '11년 한국경제성장률 전망 : 4.6%(OECD, 5월), 4.5%(IMF, 4월)

○ **(대지진이후 일본투자동향)** 일본지진(3.11) 前後 **투자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는 상황**(전년동기比 지진前 46.1%↑→ 後 42.3%↑)

- 통상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이 1~2년이상 소요됨을 감안할 때 **'12년부터 실질적인 대지진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**

2. 분야별 세부 내용

[1] **(국가별)** 중동을 제외한 **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**하였으며, 특히, **미국 및 중국 투자가 급증**

○ **(전통선진국) 미국·일본의 對韓 투자 증가세 유지,** EU는 1/4분기 감소(48.5%↓)에서 2/4분기 증가세로 반전(45.6%↑)

- **미국**은 전반적인 경기회복 움직임으로 **투자 증가**(1,111백만불, 185.6%↑), **전기전자**(354%↑)·운송용 기계 등 **제조업***분야가 **크게 증가**(356%↑)하고, **금융·보험**(354%↑) 등 서비스업도 증가(107.5%↑)

* R사(75백만불, 태양광), Y사(150백만불, 항행용 무선기기) 등

- **일본**은 **대지진에도 불구**하고 투자 증가(891백만불, 45.6%↑), **전기전자**(180%↑) 등 부품소재 중심으로 제조업* 증가(20.3%↑), **금융보험****·유통 등 **서비스업 분야 증가**(62.3%↑)

  * S사(37.4백만불, 유사반도체), P사(46백만불, 공기조화장치) 등

  ** T사(79백만불, 자산운용), O사(32.4백만불, 금융), L사(29백만불, 투자) 등

- **EU**는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한-EU FTA 등 우호적인 환경으로 인해 증가(2,048백만불, 45.6%↑), 특히 **독일*(1,541%↑)**, **영국(155%↑)**, **프랑스(139%↑)** 등을 중심으로 상승

  * H사(353백만불, 태양광), E사(71백만불, 금융보험) 등

○ **(신흥자본국)** 중화권 투자유치 활동(북경IR, China Desk 운영 등) 및 위안화 강세 등으로 **중국**을 포함한 **중화권 투자 대폭 증가**(677백만불, 91%↑)

- **중국**은 지역개발* 등 **서비스업** 중심으로 **크게 증가**(228백만불, 251%↑)

  * B사(70백만불, 리조트 개발), C사(32백만불, 부동산 개발) 등

- 싱가폴, 말레이시아, 홍콩 등 기타 중화권은 유통·물류 등 서비스업* 중심으로 증가(449백만불, 55.4%↑)

  * M사(20백만불, 싱가폴, 창고업), H사(47백만불, 홍콩, 자동차 수리) 등

- **중동**은 정정불안 등으로 해외투자심리가 위축되어 투자 급감(67백만불, 58.9%↓), 금융 분야 중심으로 투자 유입

<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>

(단위: 백만불)

연도	'09.上	'10.上	'11.上	증감율(%)
전통선진국	3,583	2,417	4,050	67.6 %
미국	605	389	1,111	185.6 %
일본	1,178	621	891	43.5 %
EU	1,800	1,407	2,048	45.6 %
신흥자본국	1,061	1,916	1,315	-31.4 %
중화(중국)	870(31)	354(65)	677(228)	91.2%(250.7%)
중동	18	163	67	-58.9 %
기타	173	1,399	571	-59.2 %

2 **(업종별)** 지난해 상반기 제조업 감소세와 달리 **제조업·서비스업 모두 증가,** 특히, **서비스업 증가세 뚜렷**('10년 2,272백만불 → '11년 2,653백만불, 17%↑)

○ **제조업(2,231백만불, 12%↑)**은 **전기전자*(223.4%↑),** 기계장비, 금속 부문이 크게 증가한 반면, 화공, 의약, 운송용 기계 등에 대한 투자는 감소

* M사(23백만불, 獨, 자동차용전기장치), R사(75백만불, 美, 태양광소자), Y사(150백만불, 美, 항행용 무선기기), G사(30백만불, 싱가폴, 제어장치) 등

○ **서비스업(2,653백만불, 17%↑)**은 유통*(308%↑), 금융·보험, 비즈니스 서비스** 등에 대한 투자 증가

* A사(18백만불, 日, 상품중개), K사(21백만불, 日, 화장품), B사(10백만불, 日, 장비도매), M사(20백만불, 싱가폴, 창고업) 등

** L사(50백만불, 美, SW개발·공급), U사(10백만불, 美, 제품디자인) 등

< 주요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>

(단위 : 백만불)

업 종	'09.上	'10.上	'11.上	증감율(%)
제조업	1,668	1,996	2,231	11.8 %
- 전기전자	860	351	1,135	223.4 %
- 기계장비	139	111	285	156.8 %
- 화공	109	382	311	-18.6 %
서비스업	2,952	2,272	2,653	16.8 %
- 금융·보험	982	300	637	112.3 %
- 도·소매(유통)	1,257	174	710	308.0 %
- 비스니스서비스	256	316	393	24.4 %

3 **(형태별) 그린필드형 투자**(4,502백만불, **30.6%↑**)**가 증가**하고, **비중도 확대** ('10년上 79.6% → '11년上 83.9%)

○ 한-EU FTA 발효 등 한국의 투자 매력도 증가 및 신규 투자가 발굴 노력 등을 통해 **지난해 추세가 지속**

○ **M&A형 투자**(863백만불, 2.5%↓)는 국내기업간 기업결합이 활발한 추세가 이어져 1/4분기(5.1%↓)에 이어 **소폭 감소**

* '10년 기업결합 금액 증감율(전년比, 공정위, 11.1월) :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13%↑,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결합 28%↓

4 **(지역별)** 금융 등 서비스업 및 전통선진국 투자 증가 등으로 인해 수도권 투자비중 증가 추세('10년上 40.3% → '11년上 47.4%)

○ 지역별 **투자규모**로는 **서울(1,809백만불)**, 경기(661백만불), 충북(398백만불) 경북(282백만불) 순

3. 하반기 전망 및 향후계획

□ **하반기 외국인투자(FDI) 여건**

○ **(불안요인)** EU 재정위기 지속, 세계 주요국의 인플레 우려,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우려*, 중국의 긴축기조, 원화강세** 등 **불확실성 증가**

* FRB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: ('11.4) 3.1~3.3% → ('11.6) 2.7~2.9%
** 원달러 환율: ('09.6) 1,286.90 → ('10.6) 1,200.40 → ('11.6) 1,077.50

○ **(긍정요인)** 우리경제의 견조한 성장세, 美·EU와의 FTA, 세계 FDI 증가 전망*, 일본기업 생산거점 다양화** 등 **긍정 요인도 병존**

* 세계 FDI 전망(UNCTAD, '11.1월) : '10년 1.12조불 → '11년 **1.3~1.5조불** 전망
** 일본국제협력은행 설문조사('10.12) : 80% 이상의 일본기업이 해외 사업을 확대할 계획

□ **하반기 FDI 전망**

○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나, 한·EU, 한·美 FTA 등에 따른 우호적인 투자환경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**전년**(130.7억불) **대비 증가세 유지** 전망

* '11년 글로벌 투자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(OECD, '11.5월)

- **(미국)** 한국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2차전지 등 배터리, IT 및 디스플레이 분야와 관련된 기업의 한국 진출 증가 전망

- **(일본)** 전기·전자 등 **부품소재** 기업의 한국 진출 증가 및 **화학분야**에서 한일 기업간 전략적 제휴에 의한 투자 진출 전망

- **(EU) 한·EU FTA발효**로 인해 하반기에도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을 제외한 **독일, 프랑스 등을 중심**으로 투자증가 예상

- **(중국)** 제주도 등 국내 **지역개발 사업**에 다수의 중국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, 자동차·조선분야 M&A에도 관심이 커 증가 예상

□ **향후 계획**

○ **우호적 對韓투자 분위기 조성** 및 **對韓 투자유치 모멘텀 마련**을 위해 **고위급 해외순방과 연계**하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**국가IR 개최**

- 한-EU FTA 발효(7.1)를 계기로 **EU지역***, 한국 FDI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**미국**(9월)과 **일본**(10월, 잠정)에 대해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전개

* EU IR 旣 개최 (7.4/7.7, 독일 뒤셀도르프/슈투트가르트)

- **중화권**(홍콩·싱카폴, 9월) 등 신흥자본국에 대한 투자유치활동 강화 및 **인도**(11월) 등 **이머징국가**에 대한 **최초 국가IR 추진**

○ 旣진출 외투기업 증액투자 유도, 외국기업 방한초청, 글로벌기업과 다중협력 강화 등 **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전개**

- **상시 투자애로 해결체계 구축** 등을 통한 증액투자 촉진 및 獨·日기업 등을 대상으로 **국내 투자유망지역**(부품소재전용공단 등) **현지시찰** 기회 제공

- **외국인투자주간(FIW), 외투기업 CEO 포럼** 등 외투관련 국내 행사와 연계하여 투자유치활동 전개

○ **외투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노력**과 **주요 프로젝트 점검** 및 **밀착 지원** 등을 통해 **FDI 제고노력 강화**

- 외국인투자의 우호적인 환경 조성, 신성장동력 확충 등 중장기적인 정책마련을 위해 **'제2차 외국인투자 3개년 계획'** 수립·시행 (7월, 외투위)

- 분기별 **프로젝트 점검회의** 개최, 필요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**고위급 면담** 등을 통해 투자유치 실적 제고

붙임 : 2011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동향